

수도권 · 지역 투자사 '한자리에'

'2024 전북의 별, 벤처투자 야행' 개최... 유망 스타트업 소개 ·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수도권 투자사와 지역 투자사를 한자리에 모아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2024 전북의 별, 벤처투자 야행'을 4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 벤처펀드 운용사 대표 23명이 참석해 지역 스타트업들과 열린 네트워킹을 펼치며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2024 전북의 별, 벤처투자 야행'이 4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벤처펀드 운용사 대표 23명 등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수도권 투자사들의 높은 참여가 눈에 띄는데, 이는 전북 벤처펀드가 민선 8기 들어 기존 6개사에서 31개사로 크게 확대한 결과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지역 벤처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졌으며, 기존 2,104억 원이었던 운용 규모는 올해 말까지 8,9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국 최대 규모다.

주요 행사로 '전북 벤처펀드 컨소시엄' 출범식이 열렸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벤처펀드 운용사 25개사와 협력해 초기 창업 생태계 구축, 도내 기업 밸류업, 도의 유망기업 유치의 세 분야에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지역 벤처투자에 기여한 투자사 총 12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는 전북 벤처펀드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도의 유망기업인 에너이버베터리솔루션을 완주에 유망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사'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문화콘텐츠, 기후테크, 바이오·헬스, 방위산업 등 4대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전북 TIPS 운영사 4곳과 조기 결성 및 투자 발굴에 앞장선 투자사 7곳에도

감사패가 수여되어, 총 12개 투자사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 4개사와 도내로 이전 예정인 스타트업 2개사의 기업설명회(IR)도 진행됐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전기차 폐배터리 해체, 바이오·헬스, 기후테크 등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했다.

이 행사는 수도권 투자사가 투자를 전제로 추천한 기업들을 다른 투자사에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IR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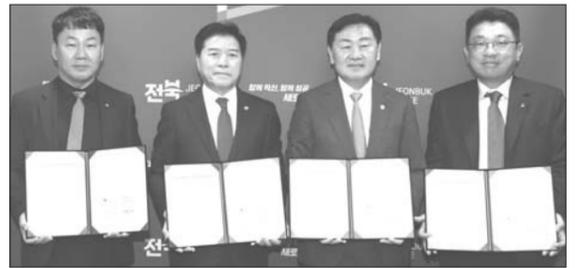
한편, 김지사는 공식 행사 종료 후에는 전북 벤처펀드 운용사 대표 23명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투자사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또한, 전북 벤처펀드 컨소시엄의 대표 투자사 6개사는 전북의 투자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전북 벤처투자 생태계의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행사는 만찬으로 이어져 '전북 벤처투자자의 밤'이 열렸으며, 김중훈 경제부지사와 주요 투자사들이 참석해 전북 벤처 생태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SBI인베스트먼트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별화된 벤처펀드 운용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전북 벤처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투자에 적극 임해주시는 투자사 대표들과 인직원 모두에 감사하다"며, "지방소멸에 임박한 지역의 경제 결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모두 다 함께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대우건설 · 중흥토건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맞손'

새만금개발청-대우건설-중흥토건, 업무협약 맺어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대우건설 · 중흥토건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우건설 · 중흥토건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혔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투자 제안을 작성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2024년 현재 국내 도급 순위 3위 대형 건설사로, 중흥토건이 대주주로 구성된 중흥그룹의 일원이다.

중흥그룹은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업 기반의 대기업이다. 대우건설 · 중흥토건이 새만금에 투자할 경우, 속도감 있고 안정적인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 중흥토건은 새만금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약속하면서, 그동안 위험성 높은 해외 사업도 성공적으로 인수한바 새만금 사업도 성실히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하고, 새만금 투자 의사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대우건설 · 중흥토건은 세부적 투자 제안을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할 계획이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적극적인 인허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이 대우건설 · 중흥토건과 투자 업무협약(MOU) 체결의 성과로 이어졌으며,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정읍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날 31일 정읍 이평(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H5형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 판정에는 약 3~5일이 소요된다.

지난달 2일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정읍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검출지점 반경 10km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 농가(닭 48호, 오리 11호, 메추리 1호)에 대한 예방 강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 또는 방역당국(☎ 1588-4060)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도, 정읍 첨단산단 입주기업들과 간담회 개최

바이오인프라기반 강화 · 수출 다변화 · 도내 우선 구매 방안 등 건의 전북자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지속 확립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4일 정읍시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입주기업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4일 정읍시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방문하여 입주기업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염연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과 정읍시 관계자가 함께 자리해 정읍 첨단산업단지 내 바이오 기업들의 요구와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나무숨(주), 피에스비바이오(주), (주)엔153바이오텍, (유)줄바이오텍, (주)해브코리아의 대표가 참석해 바이오 관련 지원확대, 수출 다변화를 위한 신규사업 지원, 도내 제품 우선 구매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정읍시는 광역시 외 지역 최초로 전북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만큼, 바이오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다"며 정읍의 바이오 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올해 개관한 첨단산단 내 복합문화센터가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산단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정읍시가 바이오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 바이오 산단을 육성할 수 있게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운영 △특구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한 세계감면 및 규제 완화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업 맞춤형 외국인 근로자 비자 사업 등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만호 기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세요'

도내 6개월~13세 어린이 대상, 24일까지 집중접종기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린이의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11월 24일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접종기간은 전과 위험이 높은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내 인플루엔자 유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플루엔자는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하며, 예방접종 후 약 6개월 동안 면역력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11월 안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집중접종기간 종료 후에도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지만, 유행 전 예방을 위해 집중접종기간 내 접종을 권장한다.

접종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로, 집단생활을 하는 소아·청소년

의 경우 전과 위험이 높고 지역사회 유행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이 제공되며, 과거 접종력과 연령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하다. 특히 과거 접종 이력이 없거나 1회만 접종한 9세 미만 어린이는 2회 접종을 권장한다.

도내 약 330개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통해 지역별 접종 가능 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시 어린이의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 편의를 위해 모바일 및 PC에서 사전 전자예약도 작성이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